금호타이어 화재 여파…공장 함평 이전 속도 빨라지나

광주공장 재건·함평 신공장 신설 기로…용도변경 등 쉬워져
폐쇄땐 법적 걸림돌 풀려…빛그린산단 이전 논의 급물살 탈 듯
중국 자본, 지역사회 상생·공공기여 등 이행 약속 천명해야

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한달간 소촌·송정·선운·도산 등 공장 주변을 중심으로 도로 분진을 세척하는 살수차를 운영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가 법령에 막혀 수년째 진척이 없는 공장 이전 문제의 전환점이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공장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국토부 법령인 공장 '공업 용지'를 가치가 상승하는 '상업용지'로 전환되기 위한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이번 화재로 사실상 충족됐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이후 50년 이상 된 노후 공장을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먹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정성이 담긴 새 공장 이전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 발생한 불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을 기해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서쪽 공장(2공장)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분간 정상적인 공장 가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1공장과 2공장으로 나뉘는데, 화재가 발생한 2공장은 생고무에 화학 약품을 첨가해 혼합하는 작업인 정련 공정과 반제품 생산 등 핵심 원료 가공 설비가 집중된 공장으로 전체 생산량의 88%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1·2공장 모두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면서, 새 공장 이전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974년 설립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설비 노후화와 도심 내 입지에 따른 민원 등으로 수년 전부터 이전이 추진돼 왔으며,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0월 함평군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매입을 확정하고, 이전 계획도 공식화한 상태다.

이후 금호타이어 측은 공장 이전에 1조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막대한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광주공장 부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공장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려면 "기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관련법 때문에 공장 가동 시 용지 전환을 해 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실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은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한정돼 있다.

법적인 문제 외에도 지역 내에서 중국 자본인 금호타이어 측이 상업용지 전환으로 막대한 매각 자금만 챙기고, 신규 투자나 공공기여 약속 등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이전 문제의 큰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화재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50년이 넘은 노후 공장을 다시 짓는 것보다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공장 이전 계획을 서두르는 게 공장 현대화와 재정적 측면에서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공장 이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토지 용도 변경 문제가 이번 화재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는 점도 공장 이전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인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도 공장 이전과 관련, 새 공장 착공 일정과 기존 노동자 고용 승계 방안, 지역사회와의 상생·공공기여 약속 등 실질적 이행 계획을 신속히 밝히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 역시 금호타이어의 새 공장 이전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9일 "그동안 일관되게 금호타이어에 공장 이전을 요청해 왔다"며 "공장 이전을 한다면 이전에 따른 용도변경 등 이런 문제도 법적인 허용 범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일단 화재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공장 이전 계획은 사고 수습 후 공장 복구와 비용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아 현재 논의할 만한 상황이 아닌 점을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전, 공기업 최초 'HRD BEST Awards' 2년 연속 수상

인재개발전략 세계 최고 권위 상

한국전력공사(한전)은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ATD 2025 Awards Ceremony'에서 공기업으로서는 최초로 'HRD BEST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HRD BEST Awards는 미국 인재개발협회(ATD)가 지난 2003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교육과 조직성과 간의 연계성, 인재육성 분야 혁신 사례, 학습 문화의 내재화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인재개발전략이 조직 전략과 얼마나 연계됐는 지 여부와 경영성과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 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해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2018~2019년 2년 연속 수상했고, 올해 한전이 2년 연속 수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5월 최초 수상 당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3-way(집합-화상-e러닝)' 교육체계 확립, 일·학습 병행을 위한 직무멘토링, 학습조직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공기업 최초로 개인 역량을 인증하는 디지털 배지 등을 도입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으로 역량 개발 및 성장경로를 지원한 점 등이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높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2년 연속 수상은 현재 한전이 처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직원들의 역량개발 및 교육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육성 전략을 발전시키고,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에너지 산업 디지털 전환 한전KDN-ABB 업무협약

한전KDN은 "지난 14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KDN 본사 대회의실에서 ABB와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기술력을 더해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 발굴과 미래 에너지 분야의 주도적 역할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Anders Maltesen ABB 아시아 에너지 총괄 대표, 김재규 ABB 코리아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기관 소개, 협약 서명, 향후 협약 이행에 대한 양사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양사는 국내 5개 발전사의 ABB 설비에 대한 사업모델 발굴,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 미래 에너지 분야의 신사업 발굴, 디지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상호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형 솔루션을 선보인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협약은 ABB의 글로벌 기술력과 한전KDN의 디지털 기반 에너지 ICT 플랫폼이 만나 전력산업의 미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사의 협력이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모범적인 디지털 전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제품 구매 확대해야"

광주경총 다섯번째 대선 공약 제시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20일 다섯번째 대선 공약으로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제품 구매 확대' 분야를 제안했다.

광주공동브랜드는 대기업 가전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 등에 대응해 대기업 의존형 가전 산업 생태계를 완제품 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광주시가 지역 가전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진행중인 해당 사업 선정기업은 광주공동브랜드 사용이 가능하며 맞춤형 마케팅과 제품 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회 지원, 라이브커머스·할인 판매 기획전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광주공동브랜드 기업들은 대기업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외 마케팅과 A/S 분야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고 대량생산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 못지 않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주시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건설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

4대 그룹, 자산·이익 늘었지만 고용은 '제자리'

리더스인덱스 3년 추이 분석

최근 3년간 상위 4대 그룹 삼성·SK·현대차·LG의 자산총액과 순이익이 늘어난 반면 직원 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0일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기준 30대 그룹과 4대 그룹의 자산총액·매출액·당기순이익과 직원 수 3년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4대 그룹의 자산 총액은 2022년 1255조7050억원, 2023년 1360조454억원, 2024년 1444조7580억원으로 3년간 15% 증가했다.

2019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작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30대 그룹 전체 자산총액도 2022년 2373조7230억원에서 2024년 2721조9540억원으로 14.7% 늘었지만, 2023년의 3074조3200억원보다는 11.5% 줄었다.

수익성 면에서도 4대 그룹 중심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4대 그룹 매출은 2년간 0.5% 증가에 그쳤는데 당기순이익은 30.8% 급증했다.

그러나 수익 증가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4대 그룹 직원 수는 2022년 74만5691명에서 2024년 74만6486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30대 그룹은 이 기간 전체 직원 수가 140만724명에서 152만4662명으로 8.8% 증가했다. /연합뉴스

1분기말 가계빚 1929조원 또 역대 최대

증가 폭은 전 분기보다 축소

올해 1분기(1~3월)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 빚(부채)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신용대출이 5조원 가까이 줄어든 영향으로, 가계 빚 증가 폭은 전 분기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1925조9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많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2023년 2분기(+8조2000억원)·3분기(+17조1000억원)·4분기(+7조원) 계속 늘다가 작년 1분기 들어서야 3조1000억원 줄었지만, 이후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1분기 증가 폭(+2조8000억원)은 전 분기(+11조6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가상자산 랠리에 작년말 국내 시총 100조

이용자도 1천만명 육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가상자산 가격이 랠리를 이어가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개 거래소와 8개 보관·지갑업자 등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조사한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트럼프 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 기대감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규모가 확대하면서 작년 말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같은 해 6월말(56조5000억원) 대비 91% 늘었다.

사업자들의 영업이익 역시 상반기 5813억원 대비 28% 늘어난 7415억원을 기록했다.

가상자산시장 확대로 거래 가능한 이용자 역시 증가해 1000만명에 육박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6월 3일 증시 휴장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과 KSM(KRX스타트업마켓), 파생상품시장,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 등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쉰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1.80 (-1.62)
↓	코스닥	715.55 (-1.80)
↓	금리 (국고채 39년)	2.330 (-0.036)
↓	환율 (USD)	1392.20 (-5.60)

〈오후 4시 49분 기준〉